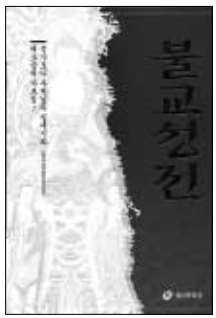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펴냄  
홍신문화사 / 2만원

부처님 가르침 쉽게 번역



‘불교성전’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80년 생애와 대소승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을 말한다. 불교성전편찬위원회가 이번에 펴낸 <불교성전>은 부처님의 삶과 정신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 책이다.

불교란 부처님의 언교(言敎) 밖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설령 그 법문이 8만4천이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부처님의 설법을 기초로 하는 것인 만큼, 부처님 말씀을 벗어난 불교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 생전의 설법이 아무리 알기 쉽고 간명하게 표현됐다 하더라도 당시의 언어와 글로 돼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의 뇌리에 새겨질 수가 없다.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전달 수단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은 총 8권으로 돼 있다. 부처님의 출가에서부터 성도(成道), 전도(傳道), 열반 등이 7백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히 소개돼 있다. 이권을 전개한다든지, 편자가 설법 이외의 내용을 덧붙인 것은 없다. 인도 고유명사 표기도 가급적 원음을 따르려고 했다. 용어도 독자들을 위해 가능한 쉽게 사용했지만 불토(佛土)를 ‘부처님 국토’와 같이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풀이해 놓은 것은 욕에 티다. 발심을 원하는 불자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이다.

김주일 기자

큰스님이 항상 내 곁에

‘한국현대고승전집(40권+40CD)’

삼각형프레스 펴냄  
각권 5만원

“불법이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기의 참모습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서용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나와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천은 두륜산 대흥사 조실). “일상중에 화두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눈 앞 2m 지점에 화두를 두고 의심하면서 행해야 한다.”(진제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지종, 종성, 대정, 천은, 정관, 지성, 화산, 일운, 인환, 현해, 혜성, 각성, 압도, 혜거, 도업, 지안, 설산, 효란, 청소, 도우, 성공, 한담, 정무, 일휴, 혜홍, 원광, 서암, 법성, 도성, 목산, 구암, 지하, 범주, 법다, 진관, 법현 스님 등 범명만 들으면 고개에 금방 끄덕여질 스님들의 법문.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감로법문이라 하는 것은 그 가르침에서 묻어나는 감동과 교훈이 우리의 메마른 삶을 촉촉이 적어주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큰 스님들의 가르침에 젖어두고 싶은 때가 있다. <한국 현대고승전집>은 바로 그럴 때 손에 잡으면 좁체 눈을 땔 수 없는 책이다. 이 책에는 삼각형프레스 출판사 불교당 정도일씨가 5년간 전국 각 산사를 누비며 친견한 이 시대 선지식 40명의 감동적인 생애와 생생한 육성 법어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1부에서는 큰 스님들의 출가전후 이야기, 수행방법과 과정, 개인적인 원력 등을 압축 요약해 사진과 함께 일대기 형식으로 수록했다. 특히 수행과정 부분은 스님 저마다의 독특한 수행법이 소개돼 있어 불자들의 신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부는 주로 스님들의 법문 내용을 요약했다. 실제 법문 현장에 녹음기를 들이대고 녹음한 것을 풀어썼는가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법문 녹음 테이프를 그대로 옮긴 것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도일씨가 찾상을 사이에 두고 스님

들을 친견하며 받아 적은 것들이다. 그래서 스님들을 바로 옆에서 친견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정씨가 현장에서 딸출리며 건너올린 생생한 정보들이 책 속에 녹아 있음이다. 그렇다고 이 책들속에 딱딱한 법문만 빼곡히 들어 차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간 중간에 스님들의 행장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과 넉넉한 편집이 읽는 이들에게 책을 쉽게 놓지 못하게 만든다. 또 각권마다 스님들의 모습과 법문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20분 분량의 CD에 담아 놓아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했다.

이시대 선지식 40명의 감동적인 생애와 법문 스님 동영상 CD에 담다

정도일씨는 “불자들이 좋아하는 티켓한 스님처럼 우리나라에도 드러나지 않은 훌륭한 큰 스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스님들의 주옥같은 가르침들이 입작한 뒤에도 후세에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는 문서와 영상으로 기록돼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간헐 동기를 설명한다. 또 정씨는 “앞으로도 세간에 드러나지 않은 선지식들을 발굴해 제 2차 고승전집 간행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

<한국 현대고승전집>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는 사전처럼 항상 머리맡에 두고 삶의 여유가 줄어들 때마다 들으며 위안을 삼기에 안성마춤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고통도 내것으로 받아들이는 길 안내

‘마음을 열어주는 명상록’

타르탕 툴루 린포체 지음 / 박지명 옮김  
하남 / 8천5백원

이러크 전쟁, 전염병 ‘사스’ 등으로 온통 시끄러운 세상에 마음을 고요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명상집 <마음을 열어주는 명상록>이 출간됐다.

사실 그동안 시중에 나온 명상집은 많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달라이라마, 티벳한 스님의 명상록에 이르기까지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 책은 지은 이부터 우리를 솔깃하게 만들만큼 특별하다. 저자 타르탕 툴루 린포체는 현존하는 티베트의 훌륭한 영적 스승이자 전생을 기억하는 4대분과 중 가장 세력이 큰 님마파 스승이다. 특히 저자는 티베트인이지만 오히려 서구에 그 명망이 더 알려



수행내용 제자들과 문답

져 있다. 이 책은 바로 그의 서양인 제자들과 함께 수행한 내용을 대화 형식의 문답으로 쉽게 나열했다.

‘열린마음(Openness Mind)’이 원제인 이 책은 인간의 감정에 관한 전통적인 티베트의 제목 그대로 인간의 마음을 올바르게 열어주는 데 글을 쓴 목적이 있다. 스승과 제자가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붓다의 시각으로 접근해 명료하게 제시해 준다. 그리고 ‘마음의 법칙’과 ‘삶의 법칙’이란 명제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비법의 문을 열고 진리에 도달하는지도 깨닫게 한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고 나면 심지어 고통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려한 마음까지 들게 된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책



몽골불교 역사·실상 소개

‘몽골불교사’

돌고른 체데브 지음 / 다그미트마 번역  
불교정신문화원 / 1만원

몽골 불교는 부처님께서 득도하신 후 (서기전 565~490) 180년 뒤 인도로부터 고대 중국 티베트를 거쳐 몽골에 들어왔다. 몽골의 왕들은 부처님이 환생한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래서 불교는 몽골인들의 정치, 경제,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몽골하면 가장 먼저 우리 뇌리에 떠오르는 정기스칸도 ‘바자라파니’라 불렀는데 이날 역시 풀이해 보면 ‘환생한 부처’란 뜻이다. <몽골불교사>는 몽골의 초대 법왕인 자나바자르의 생애를 통해 몽골의 불교 역사를 소개한다. 또 책 말미에는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티베트의 성자 밀라레파의 수행 생활에 대해서도 실었다.



엄마 그리워하는 동자승

‘동승’

박혜수 지음  
샘터 / 8천5백원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슬픈 동자승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동승>이 나왔다. 현재 상영중인 영화 ‘동승’의 홍보 책자로 기획됐다. 그래서인지 책 중간 중간에 영화의 이미지 장면들이 들어가 있어 책을 읽다보면 영화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든다. 내용은 슬프다. 집을 자주 찾는 대장집 미망인이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생아 동자승 도념을 수양 아들로 삼으려 하지만 주지 스님이 반대한다. 하지만 도념은 끝내 주지 스님께 하지 인사를 드리고 어디엔가 살고 있을 어머니를 찾아 집을 떠난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보리심 기르는 수행법

‘실험처럼 살아라’

페마 최원 지음 / 진우기 옮김  
솔바람 / 8천9백원

<실험처럼 살아라>는 미국 출신의 티베트 비구니 페마 최원 스님의 저서중에서도 단연코 실용성이 돋보이는 책이다.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의 보리심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수행법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특히 고통스런 감정과 두려움을 반기운 친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상, 마음모기, 놓아 주기, 마음 열기 등 구체적인 방법과 예를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좌절된 사람들, 두려움에 압도된 사람들, 아무런 기쁨이나 생명력도 없이 죽은 사람처럼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실용적인 도움을 준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예시야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티 낫 한	명진출판사
2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3	힐	티 낫 한	명진출판사
4	감산자전	대성 스님	여시야문
5	물은 답을 알고있다	에모부 마쉬루	나무심는사람
6	통일법요집	편 집 부	조계종출판부
7	묻지 않는 질문	현용 스님	민족사
8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김재경	마당날은집
9	능엄주해의	전수태	운주사
10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	달라이라마	무우수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야문 전화: (02)737-0695

내 마음 부처님이신 큰스님들!

그 분들이 나누어주시는 마음과 마음, 정과 정,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혼이 되어 스며듭니다. 지난 5년이 동안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큰스님을 찾아 뵈고 자 산사를 수십 차례 방문에 방문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멸되어 가는 귀중한 사료를 모아 한분한분 소중하고 정성을 다해 엮었습니다. 또한 큰스님들의 모습과 법문을 가까이서 알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동영상 CD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분들의 은덕이라 믿습니다.

2008년 4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장에 참여하신 큰스님들 방문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식을 상례해 올렸습니다. 이 또한 여러 불자들에게 은덕의 맥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티벳한 스님이 다녀가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너무나도 많은 영험하시고 훌륭한 스님들이 계신데 말입니다. 한편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 곁에 큰스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공경 깊은 집에서 황궁으로 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잠까지 편안할까요.

큰스님께서는 “돈을 주고 그럴듯한 집자리는 살 수 있을지언정 달콤하고 인력한 잠은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발처럼라도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평안이 깃드는 큰스님들... 그분들의 생생한 생애와 법문을 곁에 모시면 가족들의 평화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까워서 함께 모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행복과 마음의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 큰스님들의 일대기 집대성

한국 현대 고승 대 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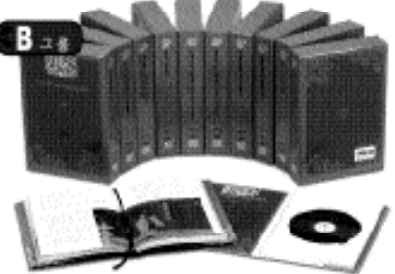
제1차 40분 탄생

이제 당신 곁에 큰스님을 모십시오

마음과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 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 실용 스님(영남)의 법문
- 실용 스님(영남)의 법문
- 실용 스님(영남)의 법문
- 실용 스님(영남)의 법문
- 실용 스님(영남)의 법문
- 실용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원 스님(영남)의 법문

\* 생존해 계시는 큰스님들의 생생한 대담을 통해 당신은 부처님의 영험한 성을 체험할 것입니다.

구입문의 : 02-446-0393